

【논 문】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이 규 철**

┃ 차 례 ┃

1. 머리말
2. 여진 문제에서 나타난 태종대의 대명의식
3. 모련위(毛麟衛) 정벌과 대명의식의 양면성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초기에는 유독 활발한 대외정벌(對外征伐) 활동이 이루어졌다. 대외 정벌의 주류를 점했던 여진(女眞) 정벌은 명목상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명과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건국과 함께 내세웠던 사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은 사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했다.

조선은 두 원칙이 충돌할 때 당연히 국정목표의 달성을 우선시했다. 사대명분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굳이 따르지 않았다. 이는 사대가 국가의 보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서의 사대가 곧 국익을 의미하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1410년(태종 10) 단행되었던 모련위 정벌은 여진 지역에 대한 조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군사 행동이었다. 태종대의 여진 정벌은 이후의 정벌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당시 조선에서 대군을 동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

원해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소수의 정예 병력을 동원해 적을 기습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지만 조선군의 기습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큰 전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은 정벌의 결과를 명에 알리면서 여진 주장들이 명(明)의 관직을 받았다는 알지 못했다는 거짓 논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모런위 정벌을 국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한 변경 장수의 대응으로 설명했다. 이 역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대명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다.

주제어 : 정벌, 대외정벌, 대외정책, 대외관계

1. 머리말

조선초기에는 유독 활발한 대외정벌(對外征伐) 활동이 이루어졌다. 대외정벌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과 군수, 작전과 이동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더욱이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정치·사회적 위험성 등을 생각한다면 순간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또한 정벌이라는 방식의 공격적 대외정책은 주변국과 대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5세기의 조선이 정벌을 자주 추진했던 논의과정과 각각의 정책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대외의식의 실제 모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조선의 국왕들은 항상 대외정벌을 추진하고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선전기 정치사에서 정벌이 갖는 의미와 조선의 정치·외교적 목표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대외정벌의 주류를 점했던 여진(女眞) 정벌은 명목상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명(明)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건국과 함께 내세웠던 사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대외관계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리고 조선의 외교 방식 역시 ‘사대’와 ‘교린’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사대교린으로 조선초기의 국제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명목상 명에 속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에 대한 정벌은 사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여진이 결코 교린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5세기의 조선은 주변 세력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태조대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시기의 국왕들은 누구보다 사대를 강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외정책을 결정했던 상황들이 자주 나타났다. 결국 조선은 사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했던 목적이 강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이 같은 조선의 태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던 정책이 바로 대외정벌이었다. 정벌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외교 활동이다. 정벌의 시행은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세력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5세기의 조선은 정벌을 자주 시행하면서 국제관계를 정립하고자 했다. 따라서 조선이 정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명의식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의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태종의 집권 이후 조선과 명의 관계는 크게 안정되었다. 태종 스스로가 사대를 강조하며 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 조선은 명의 내전과 건문제, 영락제의 즉위를 활용해 대명관계를 안정시키면서도 북방으로 진출하는 동시에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단행되었던 조선의 첫 번째 여진 정벌은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여진 지역에 대한 조

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명 역시 건주위(建州衛)와 모련위(毛憐衛) 등의 설치를 통해 여진 지역을 자국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했다. 여진 지역에서 조선과 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자 양국은 새로운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조선은 대외정책과 사대명분이 충돌할 경우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과 명, 여진을 둘러싼 15세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대외정벌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이 사대명분을 강조하면서도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국 초기의 조선이 가지고 있던 대명의식과 대여진 의식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태종대 여진 정벌을 주제로 했던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 김구진이 조선 초기의 모련위 울랑합(兀良哈)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이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모련위 야인이 경원을 침입해 조선의 장수를 살해하는 등 피해를 입혔던 일 때문에 정벌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정벌이 모련위 야인의 명 입조를 배신으로 생각했던 조선의 보복이었다는 점과 군사 행동이 오히려 야인들의 계속된 침입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¹⁾ 하지만 정벌에 관한 내용만을 다룬 연구가 아니다 보니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논증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종대의 정벌에 관해서는 박정민의 연구가 주목된다. 당시 정벌의 원인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태종대 여진 정벌의 원인을 여진 세력의 조선에 대한 침입과 명의 초유에 응해 입조했던 일에 대한 응징, 조선의 힘을 과시해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찾았다. 아울러 조선의 정벌이 이후 여진 세력의 계속된 침입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정벌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선의

1) 金九鎮, 1974, 「鮮初 毛憐 兀良哈 研究」 『白山學報』 17, 206~209쪽 참조.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²⁾

두 연구자의 견해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견해들이다. 다만 모련위 야인의 명 입조 문제는 이들의 경원 침입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태종대 정벌의 근본적 원인은 야인들의 침입 사건보다는 명의 초유에 응해 입조했던 모련위 야인에 대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대명의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던 것처럼 조선의 정벌은 여진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명과의 대립 속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대여진 관계와 함께 대명 관계와 의식 등을 함께 설명해해야만 당시 정벌이 가지는 국제관계 속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여진 문제에서 나타난 태종대의 대명의식

조선과 명의 관계는 태종의 재위기가 되면서 크게 호전되었다.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과 남은 등의 대명강경파를 제거하고 정국을 장악한 이방원은 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명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다.

정종을 이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홍무제를 이어 황제에 오른 건문제도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는데 이는 연왕(燕王)의 반란으로 인한 내전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태종은 태조가 받지 못했던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건문제에게 하사 받았다.³⁾ 또 태종은 명의 전마(戰馬) 무역 요청을 모두 따랐다. 명 역시 조선과의 말 무역에서 이전과는 달리 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양국은 모두 관

2) 박정민, 2008, 「태종대 제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白山學報』 80.

3) 『太宗實錄』 권1, 太宗 1년 5월 27일 을묘.

계 개선을 희망했고 실제로 조선과 명은 상호간에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당시 조선은 건문제의 명에 대한 사대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동시에 조선에서는 정보 활동을 통해 명의 내전에서 연왕이 점차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태종은 연왕이 황제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보고 받은 뒤 건문 연호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하등극사(賀登極使)를 준비시켰다.

조선은 영락제의 등극을 알리는 명사가 개경에 도착한 다음 날 하등극사를 출발시켰다. 이러한 조선의 조치에 영락제는 크게 기뻐했고, 조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등극사 일행이 명에 새로운 고명과 인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영락제는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⁴⁾ 조선과 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다.

당시에 조선이 명의 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욱이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사신이 도착했던 다음날 하등극사를 출발시켰다는 부분은 조선이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인정하고 축하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조선은 건문제의 패배와 연왕의 승리, 새로운 황제의 즉위 등을 과감한 정보 활동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처음에는 건문 연호를 사용하면서 사대명분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반역을 통해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영락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건문제의 입장에서 연왕의 거병은 당연히 반란 행위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건문제에게 고명과 인신을 받고, 건문 연호를 사용하던 조선에서도 연왕의 거병을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로 인식했을 것이다.

특히 사대관계를 군신관계로 설명했던 조선에서 건문제에 대한 충성을

4) 朴元燾,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150~152쪽 참조.

유지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던 영락제의 정통성을 인정했던 것은 의리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조선이 충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건문제의 자살과 영락제의 등극 소식을 들으면서도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이 강조했던 사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태종 역시 태조를 비롯한 건국 세력처럼 명에 대한 사대명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조대의 조선이 명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사대명분을 강조하면서도 정보 수집을 위한 간첩 행위를 반복하고 심지어는 요동 정벌까지 추진했던 행동과 같은 의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은 사대가 국가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유달리 강조했다.⁵⁾ 실제로 태종은 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초기의 어느 국왕보다도 노력했다. 건문제의 전마 무역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면서도,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어느 국가보다 먼저 인정하고 건문 연호의 사용을 즉시 폐지했던 조치 등에서 태종의 의도는 쉽게 확인된다. 덕분에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과 명의 우호적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태종 9년 사간원에서 올렸던 시무책을 보면 이와 같은 조선의 고민이 잘 나타난다. 사간원은 군마(軍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명에게 너무 많은 말을 진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대의 예의(事大之禮)를 지키려면 말을 계속 진헌해야하고, 종사의 계획(宗社之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말을 바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⁶⁾ 사간원의 건의는 사대와 종

5) 「上曰 … 我皇帝 本好大喜功 如我國少失 事大之禮 必興師問罪 我則以爲 一以至誠事之 一以固城壘 蓄糧餉 最是今日之急務」(『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4월 8일 임진); 「上謂諸卿曰 … 如向者安南一舉 帝之失也 自念 吾東方 土瘠民貧 境連上國 誠宜盡心事大 以保一區 如不得免焉 則當積穀練兵 固守封疆」(『太宗實錄』 권27, 太宗 14년 6월 20일 신유).

6) 「司諫院上時務數條 … 一 國之所重者兵也 兵之所重者馬也 故周制掌兵之官 不曰司兵 而曰司馬 馬之於國 其用重矣 我國家壤地褊小 馬亦有限 自高皇帝至于建文 所獻之馬 不知其幾萬匹 今者 上國又求馬匹 其數甚多 有司程督 雖有一馬者 皆納於官 如此則國將無馬 言之可爲流涕矣

사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미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두 원칙이 충돌할 때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사대명분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굳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조선에서 사대가 국가의 보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서 사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명확한 가치로 확립되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조선과 명의 관계는 태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서로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한 상황은 아니었다. 조선 조정은 명의 정벌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을 논의했으며,⁷⁾ 명 역시 조선이 자신들의 경쟁 세력과 연계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⁸⁾ 이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언제라도 다시 대립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황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조선과 명의 대립 양상은 여진 지역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통해서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명이 본격적으로 여진 지역에 대한 초무(招撫)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던 시기는 영락제의 집권기였다. 당시 명은 타타르(韃靼), 오이라트(瓦剌) 세력과 전쟁을 거듭했고 이 여파는 요동은 물론 만주 지역까지 미치게 되었다. 세종대 이만주 세력이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왔던 것은 이러한 정세와 관련 있었다. 영락제가 건문제와 대규모 전쟁을 겪은 직후였던 즉위 초기부터 여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초무에 나섰다라는 사실은 명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唐之太宗·隋之煬帝 皆不克而還 丹兵·紅賊寇我而先亡 此非惟山川之險 將帥之良 亦以有馬故也 臣等謂 以事大之禮言之 不可不獻 以宗社之計言之 不可多獻 又安知今日求之 而明日不求耶 伏惟殿下 以事大之禮宗社之計 參酌施行」(『太宗實錄』 권18, 太宗 9년 11월 14일 임오).

7) 『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4월 8일 임진.

8) 『太宗實錄』 권18, 太宗 9년 11월 18일 병술.

영락제는 단순히 여진 세력들을 초무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명의 위소(衛所)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여진 세력에 대한 위소체제의 편입 시도는 명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했다. 명이 여진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북방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조선과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건주위는 영락제가 즉위했던 1403년(태종 3)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조선이 여진 지역의 아인들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놓고 명과 대립할 것이라는 점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영춘추관사 하윤, 지춘추관사 권근에게 명하여 사고를 열고 전조(前朝) 『예종실록』에서 예종조 시중 윤관(尹瓘)이 동여진(東女眞)을 공격하고 경계 위에 비석을 세웠던 일을 상고하게 했다. 황제가 왕가인(王可仁)을 여진에 보내어 건주위를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⁹⁾

기사에서 태종은 고려 『예종실록』의 기록을 확인해 윤관이 동여진을 정벌했던 상황과 그가 세웠던 선춘령비(先春嶺碑)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태종의 지시는 명이 여진 지역에 건주위를 설치하는 일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당시 조선은 태종의 집권 후 사대를 보다 강조하면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여진 지역에 대한 명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고려대의 기록을 통해 명의 건주위 설치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는 부분은 당시 조선에서 여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을 미리 갖추어 두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이 여진 지역의 주도권 문제를 두고 명과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했다고도

9)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27일 정유.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초 유기(劉基)의 건의를 통해 시행되었던 위소제도는 명 군사제도의 중심이었다. 특히 ‘위(衛)’와 ‘소(所)’는 군사 편제상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되었다. 위소는 전국의 군사 요충지에 설치되었는데, 상황에 따라 천호소(千戶所)가 설치되거나 ‘위’가 설치되었다. 홍무 26년(태조 2, 1393)까지 명은 전국적으로 329개의 위와 65개의 독립된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를 설치했다.¹⁰⁾

영락제는 즉위년(태종 3, 1403)부터 영락 7년(태종 9, 1409)까지 송화강과 흑룡강 일대를 중심으로 115개의 위소를 설치했다. 이후 영락 7년부터 정통 12년(세종 29, 1447)까지 68개의 위가 설치되었다. 영락 시기에만 168개의 위가 설치되었다. 이 중 130개의 위가 영락제의 몽골 친정이 시도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 이는 여진위소의 설치 목적 중 한 가지가 몽골 정벌을 대비하여 배후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¹¹⁾

조선과 명은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인식은 여진 지역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두고 15세기 내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결국 세조대에 이르러서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보다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조선의 대외정벌이 15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근본적 원인에는 바로 여진 세력에 대한 지배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었다.

태종대 조선의 여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에 대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은 특히 명과 여진의 교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태종대에도 대외정책의 목표가 여전히 북방지역에 있었음을 의미한다.¹²⁾

10) 박원호, 2006, 「鐵嶺衛의 位置에 관한 再考」, 『동북아역사논총』 13, 117쪽.

11)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195쪽.

12)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한다. 태종대에는 명과 여진 사이의 일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조선에서 명뿐만이 아니라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북면도순문사가 보고하기를, “명사가 건주위 천호 시가(時家) 등과 더불어 여진만호 구로(仇老)·만호 보야(甫也)·골간 울적합(兀狄哈) 만호 두 칭개(豆稱介) 등을 초안(招安)하는 일로 이달 22일에 보야가 사는 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칙유의 명을 받은 일과 이에 대한 일처리 방식을 보야에게 힐문하였습니다. 보야가 말하기를, ‘사신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왔으므로 부득이하게 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오도리, 올랑합, 험진올적합 등의 사람들은 모두 명령에 순종하나 오직 구로, 보야 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초유하고 돌아가는 일로써 성지를 받들고 왔다.’고 하니 구로·보야 등이 말하기를, ‘비록 명령에 순종한다 하여도 처자와 백성들이 반드시 조선에 붙잡힐 것이며, 경원병마사가 막으면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위의 구로·보야 등은 왕가인이 초유했을 당시 십처(十處) 밖 인물이니, 경원병마사가 막고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고 했다.¹³⁾

기사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도순문사가 보야에게 명사를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 나무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 측의 문책에 보야가 ‘사신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왔으므로 부득이하게 명을 받았다’고 변명하는 모습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보야가 명사를 받아들인 일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칙유를 가져온 명사에게 조선의 통제 때문에 명을 받들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조선에서 여진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조선에서 일부 여진 지역에 대한 명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음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조선은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도 명의 여진 지역 회유에 관한 내용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명이 여진 세력을 초유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추장들에게 지시했다.¹⁴⁾ 조선은 명의 여진에 대한

13)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30일 임술.

14)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3일 계유.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추장들에게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 역시 조선이 여진 지역 문제에 대해 명을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다.

당시 조선의 의도를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 세력에 대한 조치였다. 조선은 명에서 왕교화적(王敎化的)을 사신으로 파견해 동맹가첩목아를 초유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자 대호군 이유(李諭)를 먼저 보내 선유(宣諭)하도록 했다.¹⁵⁾ 이유는 다음 달에 조정에 복귀해서는 올적함아 명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했다.¹⁶⁾ 태종은 동맹가첩목아에게 관직과 약재 등을 포상조치 했다.¹⁷⁾ 심지어 조선은 명사가 가져온 칙서(勅書)의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관리를 파견해 동맹가첩목아에게 황제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¹⁸⁾

아울러 명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대비책을 준비했다.¹⁹⁾ 그리고 동맹가첩목아가 명에 입조하게 되자 그동안 있었던 일에 관한 정보도 계속 수집했다.²⁰⁾ 조선은 명과 동맹가첩목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조선의 정보 수집 활동은 결국 여진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외교 활동에서 명을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있던 조선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대명분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조선, 명, 여진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²¹⁾

이처럼 조선은 항상 사대를 강조했지만 여진 지역의 주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당시

15) 『太宗實錄』 권9, 太宗 5년 1월 7일 갑진.

16) 『太宗實錄』 권9, 太宗 5년 2월 5일 신미.

17) 『太宗實錄』 권9, 太宗 5년 2월 23일 기축.

18) 『太宗實錄』 권9, 太宗 5년 3월 11일 병오; 『太宗實錄』 권9, 太宗 5년 3월 14일 기유.

19) 『太宗實錄』 권9, 太宗 5년 4월 20일 을유;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3일 을미.

20)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17일 기유;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18일 경술.

21) 태종대 조선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이규철, 「조선초기(태조대~세종대)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역사와 현실』 65, 2장 대명정보 수집활동의 방향전환과 북방지역의 정보활동 정비(정종대~태종대), 299~306쪽 참조.

조선이 여진을 제압하거나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조선이 여진의 내조를 허용하고, 관직을 하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정벌을 통해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이러한 추정에 대한 개연성을 높여준다.

여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명과 대립하는 양상은 이후 세종과 세종의 재위기를 지나면서 더욱 심화된다. 조선이 북방 지역으로 진출하고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방향이 이미 태종대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3. 모련위(毛麟衛) 정벌과 대명의식의 양면성

태종 10년(1410)에 단행되었던 모련위 정벌은 여진 지역에 대한 조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군사 행동이었다. 조선의 첫 번째 여진정벌은 울적함 김문내(金文乃)와 갈다개(葛多介) 등이 오도리(吾都里)·울랑합과 결탁하여 경원부(慶源府)를 침입해 병마사 한흥보(韓興寶)를 살해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한흥보는 야인들의 공격 정보를 보고 받았지만 믿지 않고 방어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결국 전사했다.²²⁾

상황을 보고 받은 태종은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길주찰리사 조연(趙涓)에게 울적함에 대한 정벌을 지시했다. 논의과정에서 하륜(河崙)과 성석린(成石璘)은 출병이 오히려 변방 지역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벌을 반대했다. 반면 조영무(趙英茂)와 유량(柳亮)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태종은 이들의 의견에 따라 정벌의 시행을 결정했다.²³⁾

하지만 사간원에서 북벌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²⁴⁾ 정승들의 정벌 시

22)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3일 경자.

23)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10일 정미.

24)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15일 임자.

행에 대한 의견은 일치되지 않았다. 영의정 하륜은 정벌을 반대했고, 우정승 조영무는 출병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좌정승 성석린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종은 결국 계획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병시기를 3월 그믐에서 4월 초순으로 결정했다.²⁵⁾

당시 정벌 논의과정에 대한 기록이 소략해서 신하들의 의견이나 찬반 논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태종의 정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시행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비록 3정승의 정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영의정 하륜을 제외한 두 정승의 의견이 사실상 정벌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벌 반대 의견은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정에서는 정벌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다.

결국 길주찰리사 조연은 1,150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출동해서 모련위 지휘 파이손(把兒遜) 등의 야인 추장 및 수백 명을 죽이고 그들의 가옥을 불태웠다.²⁶⁾ 태종대의 여진 정벌은 이후의 정벌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출병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 대군을 동원해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소수의 정예 병력을 동원해 적을 기습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조선의 기습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전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과를 보고 받았던 태종은 중국 조정의 관직을 받은 지휘 등을 죽인 일은 조선에서 상국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정벌의 사정을 신속하게 주문(奏聞)하도록 지시했다.²⁷⁾ 하지만 태종의 이러한 태도는 본심이 아니었다. 태종의 본심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된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김문내·갈다개는 중국 조정의 관직을 받았습니
다. 청하건대 요동에 자문(咨文)을 보낸 연후에 그들을 토벌하소서.” 하니,

25)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22일 기미.

26)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6일 임신;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9일 을해.

27)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9일 을해.

임금이 말했다. “김문내 등이 조정에서 관작을 받은 일은 우리나라에서 알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변경의 도적은 찰리사가 변장으로서 직접 토벌한 것이니 반드시 통유(通諭)할 필요가 없다.”²⁸⁾

기사에서 의정부는 경원을 침입해 약탈하고 한홍보를 살해한 김문내와 갈다개 등이 중국의 관작을 받았으니 이들에 대한 정벌을 미리 명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벌을 통해 모련위 지휘를 죽인 일을 신속하게 해명하고자 했던 태종의 태도에서 비롯된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종은 김문내와 갈다개가 중국의 관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억지 논리를 사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벌을 정당화했다. 태종은 여진 정벌에 대한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대명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모련위 정벌을 국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한 변경 장수의 대응으로 설명했다.

태종의 논리는 파이손 등을 죽인 사정을 명에 해명하는 주본(奏本)에서도 그대로 활용된다. 조선은 명에 보낸 주본에서 이번 출병과 모련위 지휘 등을 죽인 일이 여진의 침입에 대한 변경 장수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⁹⁾ 국왕을 중심으로 정벌을 결정해 시행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정벌과 관련된 내용을 중국에 보고했던 조선의 태도를 통해 태종의 집권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방향이 변했지만 목표까지 변경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태조대의 대명 강경론자들이 북방 지역 경략을 위해서는 명과의 군사적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태종대에는 북방 지역 경략을 위해 명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 차이가 나타날 뿐이었다. 다만 태종은 국정과 외교관계의 안정을 위해 사대명분을 더욱 강조했던 것이다.

28)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16일 임오.

29)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25일 신묘.

당시 동맹가침목아 세력에 대한 초유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과 명의 대립 양상은 조선이 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확대하고 두만강과 압록강 이북의 여진 세력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³⁰⁾ 또 조선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조선에서 정도전과 남은 등의 대명강경파가 제거된 이후 요동 정벌 계획은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정종은 경연(經筵) 때 동지경연사 전백영(全伯英)이 명의 내전 상황을 언급하며 정료위(定遼衛)가 항복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자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전백영 역시 정종의 의견에 동의했다.³¹⁾ 요동 정벌까지 계획했던 태조대에 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생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선의 요동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태종 2년 동녕위 천호 임팔라실리(林八刺失里)가 3천여 호를 거느리고 명을 배신했는데, 이들은 추격하던 명군에게 큰 타격을 가한 후 조선에 귀순을 요청했다.³²⁾ 태종은 2품 이상의 기로(耆老)들을 불러 모아 임팔라실리의 귀순 문제를 논의했다. 귀순을 허락하지는 신료보다는 일단 강변에 머물러 두고 상황을 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신료들의 수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임팔라실리 세력의 귀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³⁴⁾ 이로 미루어 볼 때 태종은 임팔라실리가 인솔하고 온 3천여 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른 기록에는 임팔라실리가 18,600호를 거느리고 도망 왔다고 되어 있

30) 태종대 동맹가침목아 세력의 초유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과 명의 대립 양상은 다음의 연구들이 참조된다.

金九鎮, 1974, 「初期 毛憐 兀良哈 研究」, 『白山學報』 17; 朴元燾, 2002, 「明初 朝鮮과의 女眞 問題」,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박정민, 2008, 「태종대 제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白山學報』 80.

31) 『定宗實錄』 권4, 定宗 2년 5월 17일 신사.

32)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4월 5일 정사.

33)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4월 16일 무진.

34)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4월 16일 무진.

다.³⁵⁾ 어느 기록을 따르든지 임팔라실리가 데리고 온 민호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일 경우 명과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대규모 인원의 귀순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는 조선에서 여전히 요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태종은 임팔라실리의 송환 문제를 신료들과 논의하면서, 중국과 더불어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구하는 사람을 사지(死地)에 둘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귀순을 허락했던 조치를 정당화했다.³⁶⁾ 태종이 가지고 있던 대명의식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라 하겠다.

물론 조선에서는 영락제가 등극한 후 명에서 도망한 군사들을 추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³⁷⁾ 임팔라실리를 요동으로 압송했다.³⁸⁾ 뿐만 아니라 조선은 13,641명의 만산군(漫散軍)도 명으로 돌려보내며,³⁹⁾ 표면적으로는 임팔라실리 문제에 대해서 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은 귀순했던 인원을 모두 돌려보내지는 않았다.⁴⁰⁾ 따라서 태종대의 조선이 단순하게 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한편 김구진은 태조대와 달리 태종대에 정벌까지 단행할 정도로 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원인을 태종 2년에 발생했던 조사의(趙思義) 난에서 찾았다. 조사의 난에 동북면 일대의 가별치(加別赤) 집단과 오도리와 올랑합 등의 세력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의 난은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⁴¹⁾

하지만 그의 설명은 동의하기 어렵다.⁴²⁾ 조사의 난은 조선 건국 후 처음

35)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5월 7일 기축.

36)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5월 8일 경인.

37)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2월 13일 임술.

38)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2월 23일 임신.

39)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3월 17일 갑오.

40)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2월 20일 정묘.

41) 김구진, 1995, 「3.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334쪽.

일어난 반란이었다.⁴³⁾ 조사의 군은 반란을 일으킨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궤멸했다.⁴⁴⁾ 조정에서는 중앙의 병력을 거의 보내지 않았지만 북방의 병력만으로도 조사의 군을 진압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조사의 반란군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후대의 이징옥 난과 이시에 난 때와는 달리 조사의 난 때 조정에서는 여진 세력의 동요를 우려해 취한 조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가별치가 조사의 난에 가담했던 것은⁴⁵⁾ 사실이지만 오도리와 올랑함이 반란에 가담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도리는 조사의 난 이후 형세를 판단하기 위해 숨어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이다.⁴⁶⁾ 따라서 조사의 난을 조선과 여진 관계의 전환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조선이 여진에 대한 정벌 등의 강경책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410년의 정벌 이후에도 태종은 물론 북방 지역의 장수들이 계속 출병을 건의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록들이 쉽게 발견된다. 이는 조선이 여진에 대한 정벌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종과 세조대에 건주위와 모련위에 대한 정벌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시행되고, 문종과 단종의 재위기에도 여진 지역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던 것은 조선이 가지고 있던 대외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선은 여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했다. 이미 조선에서는 여진 세력이 자국의 영역에 속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⁴⁷⁾ 조선이 명의 여진 초유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

42) 박정민은 태종대 조선과 여진의 관계 악화 현상이 ‘조사의 난’과 관련이 적다는 점을 내조(來朝) 문제를 통해 논증했다(박정민, 앞의 논문, 249~251쪽).

43)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1월 5일 갑신.

44)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1월 27일 병오.

45)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2월 2일 신해.

46)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1월 14일 임진.

47)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6월 25일 신미.

한다. 이러한 의식은 더욱 확대되어 세종대 4군6진 신설과 영토 확장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후 조선이 국위를 선양하고 군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할 때 여진에 대한 정벌과 같은 강력한 통제 방식이 우선적으로 부각되었던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조선초기에는 유독 활발한 대외정벌 활동이 이루어졌다. 대외정벌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과 군수, 작전과 이동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더욱이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정치·사회적 위험성 등을 생각한다면 순간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또한 정벌이라는 방식의 공격적 대외정책은 주변국과 대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대외정벌의 주류를 점했던 여진 정벌은 명목상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명과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건국과 함께 내세웠던 사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은 사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이다.

태종은 사대가 국가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유달리 강조했다. 실제로도 태종은 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초기의 어느 국왕보다도 노력했다. 덕분에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운영에서 국정목표와 사대명분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웠다.

조선은 두 원칙이 충돌할 때 당연히 국정목표의 달성을 우선시했다. 사대명분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굳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사대가 국가의 보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속될 수밖에

에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서의 사대가 곧 국익을 의미하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개선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조선과 명의 관계는 아직 서로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여진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통해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났다.

명이 본격적으로 여진 지역에 대한 초무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던 시기는 영락제의 집권기였다. 영락제는 여진 세력들을 초무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명의 위소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명이 여진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북방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조선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태종대 조선의 여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보 활동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은 특히 명과 여진의 교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태종대에도 대외정책의 목표가 여전히 북방지역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1410년(태종 10) 단행되었던 모런위 정벌은 여진 지역에 대한 조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군사 행동이었다. 당시 정벌 논의과정에 대한 기록이 소략해서 신하들의 의견이나 찬반 논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태종의 정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시행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벌 반대의견은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정에서는 정벌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다.

태종대의 여진 정벌은 이후의 정벌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출병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 대군을 동원해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소수의 정예 병력을 동원해 적을 기습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하지만 조선군의 기습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큰 전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조선은 정벌의 결과를 명에 알리면서 김문내와 갈다개가 중국의 관

직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거짓 논리를 사용하면서 정벌을 정당화했다. 태종은 자신이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대명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모런위 정벌을 국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한 변경 장수의 대응으로 설명했다. 이 역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대명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다.

정벌과 관련된 내용을 중국에 보고했던 조선의 태도를 통해 태종의 집권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방향이 변했지만 목표까지 변경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여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했다. 이미 조선에서는 여진 세력이 자국의 영역에 속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명의 여진 초유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의식은 더욱 확대되어 세종대 4군6진 신설과 영토 확장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후 조선이 국위를 선양하고 군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할 때 여진에 대한 정벌과 같은 통제 방식이 우선적으로 부각되었던 것 역시 이와 같은 원인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金九鎮, 1974, 「鮮初 毛憐 兀良哈 研究」 『白山學報』 17
- _____, 1995,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 朴元煥,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 _____, 2006, 「鐵嶺衛의 位置에 관한 再考」 『동북아역사논총』 13
- 박정민, 2008, 「태종대 제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白山學報』 80
- 李鉉淙, 1981, 「여진관계」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 정다함, 2011, 「조선 초기의 ‘征伐’-천명, 시계, 달력, 그리고 화약무기」 『역사와 문화』 21
- 이규철, 2007, 「조선초기(태조대~세종대) 대외정보 수집활동의 실상과 변화」 『역사와 현실』 65
- _____, 2009,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出版

■ Abstract ■

Awareness Against Ming Dynasty During Taejong Epoch of the Chosun Dynasty And the Conquest of Yeojin

Lee, Kyu-Chul

In the early days of Chosun Dynasty, animated activities of outside conquest were extraordinarily done. The conquest of Yeojin which occupied the mainstream of outside conquest, made it unavoidable to collide against the interest with Ming Dynasty which had been nominally ruling this area.

To think of this fact, it is comprehended that the submission to the stronger which Chosun Dynasty put up with founding its nation, had a considerable limit.

In conclusion, Chosun Dynasty not so much recognized submission to the stronger as value to be necessarily kept as exploited it to give some justification to their own political deeds.

Without doubt, Chosun Dynasty preferred attaining the current government when the two principles conflicted with each other. In case that following the stronger was judged to be against a nation's interests, they did not obstinately follow it.

This means that submission to the stronger had not choice but to be attached to the absolute value of a nation's protection.

At the same time, it is shown that the submission to the stronger in Chosun Dynasty did not mean the national interests.

The Conquest of Moryun-wee made in 1410 (10th Period of Taejong Epoch) was taken as a military action which the intention for obtaining the initiative of Chosun for the area of the Yeojin was strongly reflected.

The conquest of Yeojin during Taejong Epoch was shown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post, which means collateral evidence that it made a surprise attack on the enemy by mobilizing the minority of elite troops rather than overwhelmed the opponents by raising a large force in Chosun at that time.

In spite of it, since the Chosun Army succeeded in carrying out the raid operations, they were able to win the great wartime accomplishments despite having mobilized the comparatively small troops.

Chosun insisted the fake logic that they had not known that the chiefs of Yeojin were not given public posts of Ming Dynasty with informing Ming of the result of conquest.

Together, they also tried to explain that The Conquest of Moryun-wee was not regarded as the decision from the national level but as the response to the change of location against the invasion of foreign enemies.

This is also, I'd say, the situation showing the limit of awareness against Ming Dynasty which Chosun Dynasty had.